

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손상 시기와 원인에 따른 동반손상
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윤경호 · 배대경 · 한정우 · 조계열 · 김은열

목 적

전방십자인대 파열시 손상시기와 원인에 따른 동반 손상의 빈도 및 양상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던 환자 중 다발성 인대 손상을 제외한 4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손상 시기에 따라 수상 후 3개월 이내에 수술한 환자 196명(47.5%)은 신선 파열군, 수상 후 3개월 이후에 수술한 환자 216명(52.5%)은 만성 파열군으로 분류하였고, 손상 원인에 따라 운동손상(54.6%) 및 비운동손상(45.4%)으로 분류하였으며, 또한 운동 종목에 따른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, 내측측부인대 파열, 연골결손 및 골좌상 등의 동반 손상 빈도와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.

결 과

손상 시기에 따른 동반 손상의 경우, 신선 파열군에서 전방십자인대의 단독손상,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골좌상이 많았다($P < 0.05$). 만성 파열군에서 신선 파열군에 비하여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연골결손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($P < 0.05$), 또한 외측 반월상 연골에 대한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($P < 0.05$). 운동으로 인한 손상환자에서 비운동손상보다 동반손상의 빈도가 높았으나,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($P > 0.05$). 운동 손상의 가장 많은 원인은 축구였으며, 축구, 농구, 스키, 유도 등의 운동종목에 따른 동반 손상의 빈도 및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결 론

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수상 후 3개월 이내의 신선 파열군에서는 단독손상이 많았으며, 만성 파열군에서는 반월상 연골 및 연골손상이 증가하였다. 손상 원인이나 운동 종목에 따른 동반 손상의 빈도 및 양상의 차이는 없었다.

색인단어

전방십자인대 파열, 손상시기, 원인, 동반손상